발도르프교육연구
Research of Waldorf Education
2011. Vol. 3, No. 2. pp. 1~28.

슈타이너의 12감각론과 교육

최숙연(고신대학교 강사)

＜요 약＞

본 논문은 슈타이너의 12감각론을 깊이 있게 이해함으로서 그 교육적 의미와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슈타이너는 인간의 감각을 12개로 확장하여 설명하였는데, 이들은 의지(몸)감각으로 불리는 촉각, 생명감각, 운동감각, 균형감각과 감정(혼)감각인 후각, 미각, 시각, 열감각, 또한 사고(영)감각인 청각, 언어감각, 사고감각, 자아 감각으로 구성되어있다. 이들 감각들은 인간존재의 3요소, 즉 의지, 감정, 사고 또한 몸, 혼, 영과의 밀접한 관련 속에서 이해되는 것으로 이의 상관관계를 밝혀보았다. 의지(몸)감각은 인간 개체의 내부에 속한 감각으로 '내부영역'으로 규정하였고, 감정(혼)감각은 인간의 개체가 확립한 내부를 가지고 세계(대상)과 상호작용하는 '관계영역'으로 규정하였다. 사고(영)감각은 인간의 내부를 완전히 초월하여 세계(대상)자체에 도달하는 것으로 '외부영역'으로 규정하여 이들 감각들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또한 이들 감각들은 각각 인간의 고차 정신영역과 고차적 영적 존재와의 밀접한 관련 속에 놓여있을 뿐 아니라 감각들 상호간에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그 관계들을 살펴보고 도식으로 표현하였다. 이러한 슈타이너의 12감각은 인간을 총체적이고 전인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석하며, 우리의 감각이 보호되어야 할 당위와 근거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슈타이너의 12감각론은 교육적 실천을 위한 많은 통찰을 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발도르프교육 현장에서 실천되고 있는 예들과 일상적인 장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천적 측면을 함께 살펴보았다.

주제어: 루돌프 슈타이너, 12감각, 발도르프교육

Ⅰ. 시작하는 글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감각적 자극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특히 현대는 감각과잉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넘쳐나는 미디어의 영상들로 인한 시각적 자극과 도시의 커다란 소음들, 심지어 텔레비전과 인터넷의 영상과 소리를 잠들기 직전까지 곁에 두곤 한다. 우리는 지식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며 다양한 정보들을 속도감 있게 습득해야 한다는 강박감을 갖고 있는 듯한데, 이를 위하여 온 감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넘쳐나는 자극 속에서 정작 우리의 몸은

경직되고, 호흡은 불안정하며 판단력은 흐려지고 있음을 간혹 발견하게 된다. 미로와 같은 사이버 공간 속에서 자아는 종종 길을 잃고 수많은 사건들의 소식을 접하면서도 타인과 세상의 아픔에는 무덤덤하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표피적으로는 감각적이 되어가고 있는지 몰라도 자신과 세계(타인)을 민감하게 살펴볼 수 있는 감각은 점점 둔화되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의 교육현장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은 학교 내에서의 소통의 부재현상이나, 다양한 폭력사건으로 인해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루돌프 슈타이너의 인지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발도르프교육에서는 아이들이 각종 인위적인 미디어에 노출되는 것을 지극히 꺼린다. 발도르프학교나 유치원의 교실에서 TV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가정에서도 가급적이면 TV를 없애는 것을 제안한다. 유치원이나 학교에서는 정형화된 교재가 없을 뿐 아니라-학생들이 수업시간에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스스로 교재를 구성해 나간다 - 교구도 인위적인 것이 아닌 자연물(나무, 천연양모, 실크, 밀랍 등)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흔한 마이크도 사용하지 않는다. 21세기 첨단 테크놀로지의 시대에 이러한 방식은 시대착오적이 아닌가 하는 오해도 받지만 그들은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일관적으로 대답한다. 그것은 '아이들의 감각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이렇게 아이들의 '감각'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들의 교육적 실천은 슈타이너의 '12감각론'의 이해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슈타이너는 인간의 감각을 12가지로 제안하여 설명하였는데, 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오감(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과는 다른 시각을 열어준다. 그것은 인간 존재의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슈타이너의 인지학적 세계관이 잘 반영되어 있다. 슈타이너의 12감각론이 발도르프교육계에서 잘 알려져 있는 것을 사실이지만 의외로 국내에서 이에 관한 연구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슈타이너의 12감각론은 네덜란드 의사인 알베르트 수스만 박사에 의하여 깊이 있게 다루어지고 정리가 되어져 있는데, 본 논문은 슈타이너의 저서와 수스만의 저서 '영혼을 깨우는 12감각'(서영숙 역)을 바탕으로 그 내용을 파악해 보고 그 교육적 의미에 대하여 논해 보고자 한다.

Ⅱ. 슈타이너의 12감각론

슈타이너는 인간의 감각을 12가지로 확장하여 제안하였는데[1], 그것은 촉각(sense of touch),

1) 이러한 슈타이너의 12감각론은 슈타이너의 인지학적 인간이해를 기반으로 도출된 것이다. 인지학의 핵심은 '초감각적 세계 인식'에 있는데, 칸트에 의해서 경계가 그어진 물자체(Ding an sich)의 영역은 인간의 인식능력의 고양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서양의 신비주의적 전통과 맥을 같이 하는 인지학은 신지학과는 차이가 있는데, 서양의 신비주의적 전통에서 초감각적 영역에 도달하는 방식이 '심령술'과 같은 신비한 방식이라면 슈타이너의 인지학은 '직접적인 영의 인식'에 의하여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

생명감각(sense of life), 운동감각(sense of movement), 균형감각(sense of balance), 후각(sense of smell), 미각(sense of taste), 시각(sense of sight), 온 감각(sense of warmth), 청각(sense of hearing), 언어감각(sense of speech), 사고감각(thought sense), 자아-감각(ego-sense) 이다. 이들 중 촉각, 생명감각, 운동감각, 균형 감각은 의지와 관련된 감각, '의지(몸)감각'이고(슈타이너, 2007: 184), 후각, 미각, 시각, 온 감각은 '감정(혼)감각'이며(같은 책: 185), 청각, 언어감각, 사고감각, 자아-감각은 '인식(사고, 영, 정신)감각'(같은 책: 188)이다. 슈타이너는 이처럼 12감각을 의지(몸)감각, 감정(혼)감각, 인식(영, 정신)감각으로 3분류하였는데, 이는 인간 존재의 3요소(몸, 혼, 영)를 이해하면 그 관계가 보다 뚜렷해진다.

1. 슈타이너의 12감각론 이해의 기반이 되는 인간존재 3요소

가. 몸, 혼, 영

슈타이너는 인간존재의 3요소로 몸(Körper, Leib, body), 혼(Seele, soul), 영(정신)(Geist, spirit)을 말하였다. 인간은 세상에 태어난 후 세계(대상)을 마주한다. 그리고 그 세계(대상)을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를 한다. 그 도구가 되는 것이 인간의 몸, 신체이다. 인간의 몸은 광물과 같이 유기화학물질로 구성되어 있기도 하고, 정적인 식물과 같은 호흡하고 성장하는 생명력(에테르)을 가지고 있다. 또한 운동하고 이동하는 동물과 같은 욕구를 가진 존재(아스트랄)이기도 하다. 인간을 이러한 몸을 매개로 세계를 만나게 되는데, 세계를 만나는 방식은 사람마다 비슷하지만 그 내용은 저마다의 개성과 운명에 따라 다르게 구성된다. 외부 세계를 받아들여 형성된 내적세계, 내면세계(inner world)는 바로 혼(Seele, soul)의 영역인데, 그 영역은 인간의 '감각지각(sensation)', '감정(feeling)' 그리고 '의지(will)'이다(Steiner, 1994: 27). 슈타이너는 '감각지각'의 영역도 혼의 영역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똑같은 사물을 접하더라도 그것을 감각하고 지각하는 것은 지극히 개인의 영역인데, 우리는 타인의 그것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같은 꽃을 지각하더라도 어떤 이는 그 선명한 색깔에 더 집중을 하는 한편 어떤 이는 그 향기에 더욱 집중을 하기도 하고, 개인적인 감각결손(시각장애, 청각장애, 혹은 후각장애, 코막힘)을 이유로 다른 감각을 더 많이 활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또한 인간은 그 대상을 향한 자신이 고유한 개별적인 감정(feeling)을 통해 선호의 여부가 결정되며 자신의 의지를 통하여 세계를 향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다. 이처럼 인간의 혼은 자기존재와 세계의 대상과의 상호작용을 통

는 슈타이너가 말한 '정신과학(Geisteswissenschaft)'(슈타이너, 2001a: 12-18)을 말한다. 12감각론은 이러한 슈타이너의 인지학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등장한 개념으로 이는 인지학적 인간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인지학적 인간관을 우선적으로 고찰해보기로 한다.

하여 고유의 내적인 세계를 형성함을 알 수 있다. 슈타이너는 인간의 내적인 세계를 넘어서 세계와 대상 그 자체의 영역을 말한다. 그것은 객관의 영역이자 물자체, 혹은 이데아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인간의 사고(thinking)를 통해서 이다. 즉 "사물의 이해와 인식(understanding of things)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Steiner, 1994: 30) 그 영역은 나의 주관적인 선호나 취향에 의하여 좌우되는 영역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사심을 배제하고 채널을 오직 대상에만 맞추어야 그 실체에 도달할 수 있는데 인간은 바로 사고함을 통하여 그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며 그것이 영(Geist, spirit)의 영역이다.

나. 의지, 감정, 사고

의지, 감정, 사고는 인간 혼의 3요소라고 말한다. 이들이 인간 혼의 구성요소이지만 또한 인간의 몸과 영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슈타이너가 말한 인간의 각 요소들은 상호 밀접한 연관 속에 놓여 있는데, 이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출생과 죽음의 순환적 맥락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슈타이너는 인간은 출생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영의 영역에서 지상으로 내려온다고 말한다. 영의 영역은 순수사고(pure thinking)의 영역인데, 이 영역(죽음(death)과 새로운 출생(re-birth) 사이의 삶)에서 경험 한 것이 현재의 삶속에서 반영된 것, 그 반사가 '표상'이라고 말한다(슈타이너, 2007: 50; Steiner, 2004: 29). 즉 인간의 사고가 시작되는 표상은 존재의 실체라고 할 수 있는 영의 영역의 그림자인 것이다. 앞서 언급 하였듯이 영의 영역은 나와 관계되는 영역이 아닌 대상, 세계, 혹은 사물 그 자체의 영역이다. 우리가 그 영역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나의 선호와 취향에 관계없이 오로지 '사심 없이' 대상 그 자체를 고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영의 영역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우리의 사고를 통해서이다. 그러나 슈타이너는 지상에서의 우리의 사고생활이란 영의 실체의 그림자(표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상생활에서의 사고활동이란 온전히 영적 실재에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다. 물론 슈타이너는 고도의 정신훈련을 통하여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았지만 그것은 순수하게 사고훈련이기보다는 바로 의지와 감정이 조화된 통합적인 방식을 통해서 제안하였다.

이렇게 슈타이너는 표상에 몰두하는 것이 아닌 생생하게 '의지'로서 접근한다면 그 영역에 보다 잘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인간의 의지란 "사후에 정신의 세계에서 실재가 될 미래의 싹(as a germ)"이기 때문이다(슈타이너, 2007: 73). 즉 의지 속에는 우리가 생을 마감하고 몸을 벗어던지게 되었을 때 영의 영역에 도달할 수 있는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이다. 우리가 생을 살아가는 동안 사고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생생하게 살아있는 의지를 고양하고 순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과 모든 교육적 활동에서 의지적 활동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러한 의지적인 활동은 바로 몸의 활동과 연결된다. 슈타이너는 인간의 의지를 '본능', '충

동', '욕망', '동기', '소망', '의도', '결의'의 차원으로 이야기 한 바 있다(같은 책: 102-103). 우리는 식물과 달리 이러한 의지의 여러 차원을 통하여 운동하고 활동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몸을 통해서이다. 우리 몸의 많은 의식적인 활동들, 먹고, 자고 이동하고, 말하는 행위 뿐 아니라 무의식적인 행위들의 근원은 의지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슈타이너는 그 의지의 비밀에 '12감각'을 조합시킨다. '싹의 상태로 존재하는 생생한 의지(the living will, present in man as germ)'로 관계한다면 그것은 인간의 열 두 감각(twelve senses)을 포함한 생명력 있는 그 무엇과 관계하게 된다는 것이다(같은 책: 73).

이와 같이 의지는 미래의 영적 실재를 향하여 열려있는 씨앗과도 같은 것인데 반해 사고(표상는 영적 존재인 인간이 지상에 태어나면서 몸을 입게 되면서 영적 영역에 대하여 거부감을 가지게 된 결과로 생기는 그림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같은 책: 55-67). 즉 의지는 '공감(sympathy)'과 관련되고 사고는 '반감(antipathy)'과 관련됨을 알 수 있는데, 슈타이너는 이렇게 의지와 사고 사이에 존재하는 인간 혼(영혼)의 수축(반감)과 확장(공감)의 움직임으로 인하여 '감정(feeling)'이 생겨난다고 말한다(같은 책: 119-120). 인간이 무언가를 향해 의지행위를 할 때에는 그것에 대한 공감작용, 즉 대상을 자신에게 끌어들이려는 것인데 반해, 대상에 대하여 탐색을 하거나 사고를 시작할 때에는 자신과 대상을 분리하여, 즉 반감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활동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2. 슈타이너의 12감각론의 고차영역이해의 기반으로서 인간존재의 9가지 차원

슈타이너의 12감각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인간존재의 3요소 뿐 아니라 이를 9가지로 확장한 슈타이너의 인간이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슈타이너는 각 감각요소 속에 고차원의 영적 존재가 개입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슈타이너는 몸, 혼, 영(정신)의 통합체로 인간을 파악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를 9가지의 요소, 즉 몸: 물질체(physischer Körper), 에테르체(Ätherleib, Lebensleib), 아스트랄체(Astralleib/Empfindungsleib), 혼: 감각혼(Empfindungsseele), 오성혼(Verstandesseele), 의식혼(Bewusstseinsseele), 영(정신): 영적(정신)자아(Geistselbst), 생명 영(정신)(Lebensgeist), 영(정신) 인간(Geistmensch)로 확대하여 파악하기도 하였는데,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간은 광물적 요소를 가진 존재이기는 하지만 생명력을 지닌 존재이다. 이 생명력은 무생물과 생명체를 명백하게 구분하는 하나의 힘인데, 우리는 그것을 직접적으로 감각할 수는 없지만 그것의 존재를 부인할 수도 없다. 인간이 죽음을 맞이하면 신체로부터 생명력이 떠나가게 되고 그로 인해 인간의 신체는 그 형체를 유지할 수 없게 되며 광물적 존재로 환원된다. 이렇게 생명

체의 형태를 유지하는 힘, 물질적 소재나 힘을 생명체로 바꾸는 독립적이며 현실적인 본성을 슈타이너는 '에테르체'라고 말한다. 에테르체는 식물과 동물이 공통으로 지니는 것으로 신체적 육체의 물질과 힘, 성장과 생식, 호르몬액 등의 내적 움직임의 형상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그것은 '신체의 구성자이자 형성자로서 몸체의 거주자이자 건축가'인 것이다(슈타이너, 2001a: 20).

인간은 번식과 성장을 통해 이 생명력을 유지, 보전하며, 유전을 통해 세대를 거쳐 전달하며 종을 형성한다. 슈타이너는 에테르체를 설명하면서 일반적으로 자연과학에서 말하는 생명력, 즉 동식물들의 생명력과 인간의 에테르를 구분한다. 인간의 에테르체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고하는 영(정신)(thinking spirit)', '정신(Geist)'의 영역과의 관계 속에서 고찰해야 해야 한다고 말한다(같은 책: 33, Steiner, 1994: 37). 또한 진정으로 생명활동을 이해하려면 '초감각적인 영적 지각'이 필요하며(슈타이너, 2001a: 180) 이러한 지각이 열리면 모든 생명체의 '생명 그 자체를 지각'할 수 있게 되는데, 모든 생명존재의 '생명으로 가득 찬 영적인 모습을 지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Steiner, 1994: 35)[2] [3]

인간은 생명력뿐 아니라 동물적인 충동, 감각, 욕망, 감정 등을 지닌 존재이다. 주변의 외부세계로 들어오는 자극에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욕구와 충동을 느끼는 주체인 것이다. 슈타이너는 이처럼 식물과 구분되는 '느낌'을 가진 동물적 특징의 본질을 '아스트랄체'라고 말한다(슈타이너, 2001b: 20-21). 슈타이너의 인간 본질의 구분을 9단계로 구분할 때, 아스트랄체는 단순히 '느낌체'라고 말할 수 있지만 7단계로 구분할 때는 혼체(Seelenleib, the soul body)와 감각혼(Empfindungsseele, the sentiment soul)을 통합하여 쓰이는 말임을 알 수 있다(Steiner, 1994: 59).

인간의 혼이 신체와 정신을 매개하고 있음을 상기할 때, 혼의 영역에 속하게 되는 '감각혼'은 인간의 영(정신)의 영역, 즉 사고와 관련을 맺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인간은 다른 동물처럼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환경을 욕망과 감정만으로 반응하지 않는다. 인간은 그 환경적 경험을 자

2) "We perceive their very life itself. ...We perceive the life-filled spiritual form in addition to the physical form."

3) 일반적이고 표피적으로 슈타이너의 '에테르'와 동양에서 말하는 '氣'와 유사하다고 설명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루돌프 슈타이너, 2001b: 93, 역자주해 中) 동양사상, 특히 성리학에서 논하고 있는 '氣'의 개념과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은선(1998)은 'Seele'를 '영혼'으로 번역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을 하며, 'Geist'는 신유교의 '리(理)'와 대응할 수 있으며, 'Seele'는 '심(心)', 또는 '기(氣)'와 대응할 수 있다고 보았다. '리'가 '인간존재의 정신적 핵으로 인간을 인간되게 해 주고, 특히 도덕적인 의미로서 인간이 우주적 생명의 한 현현으로서 그의 도덕적 뜻을 파악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라면 '기'는 그 '도덕적 정신력이 구체적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심리적, 신체적 장을 마련해 주는 것' 이라는 것이다.(이은선, 1998: 203) 그렇다면 성리학에서 말하는 '기'의 차원이란 희, 노, 애, 락, 애, 오, 욕의 감정적인 부분과 신체적인 모든 측면을 포괄하여 지칭하는 용어로서 슈타이너가 언급한 '몸'과 '혼'의 차원과 대응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동양의 성리학에서 말하는 '기'는 오히려 동물과 대응되는 감정, 욕구를 포괄하는 '아스트랄체'와 더 유사하다고 보이는데, 식물과 대비되는 생명력으로서의 '에테르'를 '기'와 대응하는 것은 무리로 여겨진다.

신이 사고로서 파악하여 그 환경을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고 쾌한 감정으로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한다. 그것의 결과가 '물질문명'이라는 것이다. 배, 철도, 전신, 전화 등은 '사고의 힘'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이것은 '감각혼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다(슈타이너, 2001a: 37).

사고의 영역, 영(정신)의 영역의 개입이 시작되는 단계가 감각혼의 수준이라면, 더욱 고차적인 사고능력을 가진 혼의 영역을 '오성혼'이라고 말할 수 있다(같은 곳). '오성혼'의 단계를 지나 '의식혼(Bewusstseinsseele)'의 단계에 이르면 인간은 보다 고차적인 영(정신)의 영역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정신의 영역은 인간의 선호와 쾌, 불쾌, 욕망의 영역을 벗어나는 진리의 영역이며, 이를 통해 인간은 객관적인 우주의 법칙과 질서에 도달할 수 있다. 진리의 영역뿐 아니라 인간의 선의 영역, 실천의 영역에서 볼 때 인간이 자신의 욕구나 감정의 영역, 강제적 의무의 영역을 넘어서 자발적인 인식이 제시하는 의무에 따르게 되며, 내면에서 '독립된 진리와 선'을 발견하게 될 때 인간의 영혼은 '의식혼'의 단계로 오르게 된다(같은 책: 38-39). '감각혼', '오성혼'이 여전히 감각, 충동, 격정에 영향을 받는다면, '의식혼'은 그것을 벗어나 보다 고차적 정신의 영역에 다다른 영혼의 상태이며, "인간의식의 핵심(the very core of human consciousness)"이자 '혼 속의 혼(soul within the soul)'(Steiner, 1994: 40)이라고 볼 수 있다.

인간은 자신의 내부세계(감각, 감정, 의지)를 가지고 외부세계와 상호작용해 나가는데, 이 모든 경험과 작용은 인간 일반이 아닌 바로 '내(Ich)가' 하는 것이다. 나는 다른 존재와 명백히 구별되는 나 자신이며, 그것은 하나의 독자적인 세계이다. '나'는 몸과 혼을 통하여 경험한 것을 통합하는데, 인간의 몸과 혼은 "나를 나르는 수레이고 하인"(이은선, 1998: 64)이라 볼 수 있다. 이처럼 몸과 혼을 기반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지만 나의 나됨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 있다. 그것은 오랜 시간 개별적 존재이자 영적인 존재로서 반복된 생을 살아온 영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나의 자아 속에 명확하게 자리 잡지 못하면 전정한 '나' 됨을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나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영에게 자신을 내맡기게 되는데, 이 영은 내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슈타이너, 2001a: 44)."

이렇게 '나' 속에 살고 있는 정신을 '영적(정신) 자아'라고 하는데, '의식혼'이 인간의 욕망과 감정의 영역에서 벗어나 고차의 세계, 정신의 영역에 존재하는 진리의 영역에 관계한다면, '영적 자아'는 이 모든 것을 '나' 속으로 끌어들여 하나의 독립된 개체성을 획득한다. 이렇게 혼속에 살고 있는 나는 감각을 통해 외부세계, 물체적 세계를 받아들이고 직관을 통해 정신적 영역을 파악하며 나의 세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영적자아'의 단계에 이르면 확대되고 강해진 자아가 인간의 느낌체, 아스트랄체를 변화시키게 된다. 인간이 삶을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는 본질적인 배움이나, 보다 고차적인 사고와 견해를 가지게 되는 수준을 의미한다는 것이다(슈타이너, 2001b: 24 참조). 즉 '영적(정신) 자아'는 내가 보다 고차적인 영적, 정신적 영역과 밀접하게 관련

을 가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고차적인 영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주장하게 되고, 나는 나의 감정과 욕구를 자연스럽게 그 영의 요구에 맞출 수 있게 되어 몸과 혼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나는 이제 "영적 자아가 되어 영원성을 얻게 된다."(Steiner, 1994: 51)[4]

그런데 물질적 영역, 신체가 실체를 지니고 있는 것처럼, 영적 영역 또한 소재와 힘을 가지고 독자적인 세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한다(루돌프 슈타이너, 2001b: 46-47). 이러한 영적(정신) 영역의 소재와 힘을 통해, 물질로서의 신체를 지닌 인간이 아닌 온전히 정신적 실체를 지닌 존재로서의 인간을 '영(정신) 인간(Geistmensch, spirit self)'이라고 한다.

'영 인간'은 물리적 신체를 지닌 인간이 피부와 생명력을 지니는 것처럼 영적 피부와 영적 생명력을 지니고 있으며, 인간의 진화와 함께 성장한다. 이러한 영적 생명력을 '생명 영(정신)(Lebensgeist)'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 단계에 이르면 인간의 에테르체, 생명체가 변화하게 된다. 인간이 삶을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고차적인 배움이나 깨달음을 넘어서 자신의 '기질, 성격, 습관, 기억' 등이 생명체가 변화되듯이 바뀌게 되었다면 그것은 '생명 영(정신)'으로 변화된 것이라는 것이고, 더 높은 단계에 이르면 '혈액순환이나 맥박' 등 신체를 변형시킬 수 있는 힘을 지니게 되는데 이러한 단계는 바로 '영(정신) 인간(Geistmensch)'의 단계라고 말할 수 있다(같은 책: 25).[5] 이와 같이 정신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영적자아', '생명 영', '영 인간'으로 구성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3. 슈타이너의 12감각

슈타이너의 12감각은 의지(몸)감각, 감정(혼)감각, 사고(영)감각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이것은 앞서 고찰해 본 인간의 의지, 감정, 사고의 이해를 기반으로 슈타이너의 12감각 역시 인간이 세계(대상)와 만나 관계하는 정도에 따라 세 가지 차원(영역)으로도 이야기 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것은 '내부영역', '관계영역', 그리고 '외부영역'이다. 지상에 태어난 인간은 세계(대상)와 마주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적 기반을 마련한다. 그것은 외부와 관계하지 않는 인간 내부에 속한 영역을 말하며 의지(몸)의 영역이다. 그리고 이 영역에 해당되는 감각이 '의지(몸)감각'으로 '촉각', '생명

4) "Through becoming independent and uniting with the truth, the "I" itself achieves immortality."

5) 본 연구자가 생각할 때 '영적 자아'가 영의 영역으로 자아가 고양되고 상승된 이미지라면, '영 인간'은 불멸과 자유의 영역에서 온 영이 거꾸로 인간의 몸과 혼에 침투하여 그 몸 자체를 변화시킨 인간상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처럼 온전히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지만 영이 부여하는 피부와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며 스스로 성장하고 진화하는 초월적 실재를 설명하는 것 같다. 이러한 인간상이 지구에서도 구현되는 것인지, 아니면 사후의 영적인 세계에서만 존재하는 것인지는 더 연구해 보아야겠지만, 오랫동안 명상과 수도생활을 한 고승이나 성인이 자신의 자율신경계를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음식을 먹지 않아도 배고픔을 조절할 수 있고, 심지어 심장박동까지 조절할 수 있다는 이야기들은 슈타이너가 설명한 '생명령'을 가진 '영 인간'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닐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감각', '운동감각', '균형감각'이다. 그리고 인간은 세계(대상)를 자기 안에 받아들이며 관계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로 인하여 여러 가지 감정이 발생하게 된다. 이처럼 인간 내부와 외부의 상호작용 즉 관계영역에 해당되는 감각이 '감정(혼)감각'으로 '후각', '미각', '시각', '온 감각'이다. 또한 인간 내부에서 일어나는 감정, 선호, 취향과 상관없이 세계(대상) 그 자체로 존재하는 영역을 '외부영역'이라고 임의로 규정하였는데, 그를 파악하기 위한 인간의 감각이 '사고(영)감각'이다. '청각', '언어감각', '사고감각', '자아감각'이 그것이다. 이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의지(몸)감각: 촉각, 생명감각, 운동감각, 균형감각

슈타이너는 촉각, 생명감각, 운동감각, 균형 감각을 의지(몸)감각으로 규정하였는데(루돌프 슈타이너, 2007, 184), 이들은 인간 내부에 속한 감각으로서 외부와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위한 내적기반을 마련하게 하는 감각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촉각(sense of touch)'을 살펴보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만질 때, 그것에서 전해져 오는 열감각과 운동감각, 균형 감각을 모두 제거하고 오직 촉각에만 집중하였을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일종의 '저항감', 혹은 '장애'라고 한다(수스만, 2007: 21). 그것은 바로 나와 대상간의 경계를 의미하는데, 이는 아기가 처음 태어나 자신과 세계의 경계를 획득하는 과정을 보면 보다 명확해 진다. 아기는 무수히 침대에 부딪히는 경험을 통하여 자신과 세계의 경계가 있음을 알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촉각을 통해서 이다. 이처럼 촉각을 통하여 개별자로서의 인간은 자신이 마주한 세계(대상)와의 경계를 설정하고 자신의 내부영역을 확립해 나간다.

'생명감각(sense of life)'은 생명체로서 자신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감각인데, 이는 건강할 때 보다 몸의 어딘가 아프고 불편할 때 드러나는 감각이며 일반적으로 '통증'을 통해 잘 드러난다. 인간은 이 감각을 통하여 생명체(에테르체)로서 자신의 몸 내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생체적 양상을 파악할 능력을 가지게 되는데, 이는 인간의 생존과 직결되는 감각이라 할 수 있다.

'운동감각(sense of movement)'은 다양한 차원의 의지를 가지고 운동을 할 수 있는 아스트랄체를 지닌 인간으로서 자신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감각을 말한다. 또한 적어도 수의근에 한해서 자신의 의지에 따라 움직일 수 있고, 그 움직임의 주체가 자아임을 깨달을 수 있는 감각인 것이다.

'균형 감각(sense of balance)'은 중력의 영향을 받는 존재의 특징으로서 두 발로 세상에 설 수 있고 안정되게 움직일 수 있는 감각을 말한다. "우리가 촉각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의식하고, 생명 감각을 통해서는 우리 몸의 건강상태를 파악하며, 고유운동감각을 통해서는 우리의 몸에 거주한다는 느낌을 받는다면 균형 감각을 통해서 외부세계와 관계하게 된다."(같은 책: 82)

살펴본 바와 같이 의지(몸)감각들 중에서도 내부에서 외부로 열려가는 위계를 발견하게 되는

데, 내부의 경계를 설정하는 내밀한 감각인 촉각에서 출발하여, 몸적 차원을 떠나 지구의 중력이라는 대상에 영향을 받고 그것과 관계하는 '균형 감각'의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감정(혼)감각: 후각, 미각, 시각, 열 감각

감정(혼)감각인 후각, 미각, 시각, 열 감각은 의지를 가진 인간개체가 세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감정과 밀접한 감각이지만 이들은 의지와 사고와의 밀접한 관련 속에 놓여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후각(sense of smell)'은 외부자극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거부할 수 없는 강제성을 띠는 것이 후각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이다(같은 책: 104). 이 감각은 감정감각 중에서 외부환경에 가장 공감적인 특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의 자의대로 냄새를 거부하기 힘들지만 의외로 너무나 쉽게 그 자극에 적응해버리는 특징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미각(sense of taste)'은 후각에 비해 비교적 외부자극을 내 안에 받아들임에 있어서 덜 직접적이다. 후각과 달리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열고 닫을 수 있는 상당히 사적인 공간"이라 할 수 있는데, '취사선택이 가능한 영역'이다(같은 책: 132). 또한 "후각의 외부 자극을 변화시킬 힘이 없지만, 미각은 외부에서 받아들인 자극물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특징이 있다(같은 책: 133)."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삼키는 것이 아니라 씹어서 부수며, 침을 통해 용해시켜 몸 안에 흡수하는 행위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미각을 의미하는 독일어의 'Geschmack'나 영어의 'taste'는 보다 넓은 의미로 확장되어 기호, 취향의 의미로 함께 사용되는 것을 볼 때 인간의 개별적이고 주관적인 호, 불호의 감정의 영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같은 책: 143-144).

'시각(sense of sight)'은 후각과 미각과는 달리 태아의 발생과정 중 세포형성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유래가 뇌에서 출발한다고 하는 것을 보아서 사고에 가까운 감각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시각이 인간의 사고능력과 연관됨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예는 바로 착시현상인데, 본능에 의해 움직이는 동물에게는 이 착시현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한편 시각은 인간의 감정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는 감각이기도 한데, 그것은 우리가 사물의 색깔을 볼 때 잘 드러난다. 사물의 본질이 드러나는 색채를 바라봄으로서 우리는 다양한 감정을 느끼게 되고, 그 감정은 또한 인간의 눈을 통해서 가장 잘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같은 책: 168). 이처럼 시각은 감정적인 감각이기도 하지만 후각과 미각과는 달리 대상에게 거리를 두게 되는 사고활동과 관련된 감각임을 알 수 있다. "후각은 인간의 의지와 관계되고, 미각은 그 은밀한 성격으로 인하여 인간의 내적 감정과 연관되며, 시각은 인간의 사고 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감각이다."(같은 책: 210)

'열 감각(sense of warmth)'은 인간에게 가장 먼저 발달한 감각으로 다른 감각기관들이 작용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감각이다. 이 감각은 시각과 마찬가지로 태양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감각으로서 자연과의 '관계'가 밀접한 감각이라고 할 수 있다. 태양이 떠올라 지표면을 달구면 따뜻해지고 태양이 지면 차가워지는 기후조건 속에 살아가는 인간은 자신의 체온을 유지하는 일이 생존과 직결되는 일이며, 이는 인간존재와 세계, 자연과의 적극적인 관계를 위한 행위를 유발하게 된다. 또한 온 몸에 분포되어 있는 열 감각은 "사물의 본질"에 가장 가까운 감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내 앞에 놓인 사물에 대한 정보를 나의 임의대로 차단하기 아주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따뜻한 차 한 잔이 내 앞에 놓여 있다면 나는 그것을 만지지 않거나, 마시지 않거나, 향기를 맡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것에서 전달되는 따뜻한 온기를 막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나의 의지와 감정과는 상관없이 그 사물자체가 우리에게 그의 존재를 알리는 일인 것이다. 이는 슈타이너가 말한 존재의 3요소 중 '영'과 관련된 영역이며, 열 감각은 감정감각 중에서 가장 영의 영역에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다. 인식(영)감각: 청각, 언어감각, 사고감각, 자아감각

슈타이너에게 영(정신)의 영역은 인간 개체의 쾌, 불쾌, 선호의 감정을 넘어 외부세계(대상) 그 자체가 우리에게 말하는 영역이다. 즉 나 자신을 초월할 수 있는 고차적인 능력이 요구되는데, 슈타이너는 이것이 진정한 인간의 사고능력이라고 하였으며 이는 우리의 감각 속에 기반이 마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청각, 언어감각, 사고감각, 자아감각인데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각(sense of hearing)은 혼을 넘어서 영(정신)의 영역에 속하는 감각이다. 우리가 물체의 소리를 듣는 것은 음파의 진동을 통해서인데,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물체가 '지상에서 분리'되어야 한다(같은 책: 217). 즉 "자체로는 움직일 수 없는 단단한 지상의 물체가 지상으로 해방되어 분리될 때 진동을 생성하여 우주를 향한 진동을 생성하여 소리가 창출된다는 것(같은 책: 218)"이 소리의 신비라고 말한다. 또한 우리가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청각이라는 것 역시 영(정신)의 성격을 지니는데, 우리의 귀에 일차적으로 전달되는 것은 음파의 진동이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음향이며 음정인데, 이는 "귀로 지각한 지상의 물리적인 자극을 의식에서 지우고', '심오한 차원으로 내면화'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음악은 '사고를 바탕으로 하는 수학의 영역에 더 가까운 것이며 음악의 모든 구성요소들은 수학의 법칙으로 나타낼 낼 수 있다"는 것이다(같은 책: 227-229). 우리가 무엇인가를 경청하는 것은 '우리 자신과 거리를 두고 어떤 사물이나 그 어떤 다른 존재의 몰입'을 의미한다(같은 책: 244). 지상에서 분리되어야 가능한 소리의 속성과, 자신을 초월해야 들을 수 있는 타인의 목소리는 인간 내부에서 벗어나 대상 자체로 향하는 영의 속성이다.

‘언어감각(sense of speech)’은 타인이 사용하는 ‘언어를 인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교제감각’이라고 불릴 수 있다(같은 책: 249). 우리가 언어를 듣는 것은 음악을 듣는 것보다 고차적인 영역에 속한다고 한다. 언어를 인지하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소리를 듣기 위해 음파를 지우고 언어의 멜로디를 지각하기 위해서 음계를 지우고 난 후 멜로디를 비롯한 언어의 모든 음악적인 요소를 지울 때 언어의 내용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모음과 자음은 지상의 물질로 만들어진 악기와는 차원이 다른 우주를 향한 인간 정신의 악기”라는 것이다.”(같은 책: 256) “우리가 하나의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 몰입할 때, 자신의 존재나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개인적 차원을 넘어 신적 차원”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같은 책: 260).

‘사고감각(thought sense)’은 “자신의 사고를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사고를 지각하기 위한 것이다.”(슈타이너, 2007: 182) 타인의 사고를 지각하기 위해서 언어는 필수적이긴 하지만 슈타이너는 ‘언어는 단지 사고를 매개할 뿐’(같은 책: 183)이라고 말한다. “사고 속에 존재하는 개념들은 언어보다 높은 차원의 의식이며(수스만, 2007: 262)”, “모든 언어를 초월한 개념의 세계에 도달할 때(같은 책: 263)” 타인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개념은 슈타이너가 말하는 영의 실체에 가장 가까운 의미일 것이다. 개별 음성과 언어형식을 넘어서 고요한 침묵 속에서 빛을 발하는 순수사고의 열매이자 실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플라톤의 ‘이데아’이자 칸트의 ‘물자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자아감각(ego-sense)’은 ‘나의 내부에서 나 자신의 자아를 인식하는 것’과 ‘타인을 자아로서 인식하는 것’(슈타이너, 2007a: 179)을 말하지만 여기에서의 자아감각(ego-sense)은 “나와 관계하는 타인도 나와 똑같은 하나의 자아를 소유한 존재이며 하나의 독립된 개체임을 인식하는 것이다.”(수스만, 2007: 272) 특히 타인의 자아를 지각하는 것은 일종의 ‘공감-반감’이 상호작용하는 것인데, 공감 속에서 타인의 존재가 내게로 강력하게 들어오고 반감 속에서 나는 그것에 대해 방어를 하는 과정을 반복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이것은 감정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식과정’인데 이는 ‘잠자고 있는 의지과정의 변형’이라고 말한다(슈타이너, 2007: 181-182). 이것은 “타인과 대화를 나누거나 타인의 말을 경청하면서 종종 내적으로 화나기도 하고 타인에 맞서 자신을 방어하려는 심리적 기제가 발동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다.”(수스만, 2007: 280) 이러한 심리적 작용은 식물이나 동물에게는 느낄 수 없는 ‘자아’를 소유한 인간만이 가지는 고유한 것이며, 그것은 ‘언어를 통해 표현되는 사고의 주체가 진정 그 사람인지 판단하는 것에 몰두해야 하는’(같은 책: 277) 더 높은 차원의 감각인 것이다. 타인과 대화를 하면서 그가 말하는 것이 그의 고유한 자아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의 음성과 언어, 그리고 개념을 넘어서 그가 말하는 것이 얼마나 스스로에게 내면화되고 체화되어 자아화 되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고도의 감각이 필요하다. 또한 타인과의 만남에 있어서 타인의 자아를 무시하거나 타인의 자아에 매몰되어서

자신의 자아를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늘 깨어있는 의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슈타이너의 12감각을 살펴보며 이 감각들이 일종의 위계를 가지고 인간의 의지(몸), 감정(혼), 사고(영)와 어떠한 관계를 지니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이를 간단한 도식으로 형상화하면 다음과 같다.

촉각	생명 감각	운동 감각	균형 감각	후각	미각	시각	열 감각	청각	언어 감각	사고 감각	자아 감각
의지(몸)					감정(혼)						사고(영)
내부영역	◀				관계영역					▶	외부영역

<표 1> 슈타이너의 12감각과 의지(몸), 감정(혼), 사고(영)와의 관계

4. 슈타이너의 12감각과 고차적 영역과의 관계

슈타이너의 인지학적 인간론의 특징은 어느 부분을 탐색하든지 간에 반드시 통합적이고 전인적인 인간존재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전제된다는 것인데, 이는 12감각론에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12감각들이 인간의 의지, 감정, 사고와 어떠한 관련을 지니는지 살펴보았고 인간 개별존재에서 시작하여 세계와 대상으로 그 영역을 확장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슈타이너의 12감각론의 심오한 특징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각 감각들은 고차적인 영적영역과의 밀접한 관련 속에서 또 하나의 통합체를 구성한다. 그것은 하위감각이라 불리는 의지(몸)감각은 인간 존재의 '영적차원'과 관계를 맺고 있고, 중위감각이라 불리는 감정(혼)감각은 인간존재의 '혼적 차원'과의 관계를, 그리고 상위감각이라 불리는 사고(영)감각은 고차적인 '영적실재'들과 관련을 맺고 있음을 밝힌다. 이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인간존재의 9가지 차원, 영적 존재(천사, 대천사, 그리스도)와 연관되는 것이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의지(몸)감각과 인간존재의 '영'적 차원의 관계

인간의 가장 기초적인 감각이자 내부감각인 의지(몸)감각의 4가지는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의 높은 영적 차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슈타이너는 인간의 영적 차원을 영적(정신)자아, 생명영(정신), 영(정신)인간으로 확대하여 설명한 바 있다. 슈타이너의 하위감각은 이 영적 차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촉각은 나와 세계의 경계를 설정하게 한다고 보았는데, 그러나 인간은 촉각을 통하여 나와 세계간의 경계만을 느낄 수 있을 뿐, 대상 자체의 본질에는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고차원적으로 해석하면 인간존재가 우주의 근원에서 분리된 존재이며, 그곳으로의 회귀를 갈망하는 종교적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고 한다(수스만, 2007: 26-28). 또한 인간은 생명감각을 통하여 자신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상태를 점검할 수 있고, 특히 고통을 통하여 잘 드러난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렇게 복잡한 자신의 몸 상태를 거의 반사적,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은 더 높은 차원의 정신적인 힘에서 유래한다고 한다. 그것은 육체인간에 대립되는 개념인 '영(정신)인간'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지고한 존재의 힘을 통하여 우리 몸의 위험한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같은 책: 42). 자신의 몸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감각인 '운동감각'은 고차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이는 인간의 목적의식, 혹은 계획, 또는 운명과 연결된다. 우리의 의도적인 개별적 움직임들의 총합은 삶의 계획 그리고 운명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인간의 "문화적인 삶의 계획이 애초에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 자리잡고 있으며, 우리는 이 삶의 계획을 '생명영(정신)'이라 한다."(같은 책: 70) '균형감각'은 지상에서 두 발을 딛고 똑바로 서는 것이 몸적 차원의 이해라면 이에 대한 고차적 영역의 이해는 바로 '자아'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가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순간적으로 어지러움을 느끼며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을 갖는 것은 자아가 균형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기 때문인데, 이때 자신의 자아를 아래까지 확장하여 도달하게 되면, 비로소 안정되게 균형을 잡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자아를 가지고 살고 있는 인간은 자신의 공간을 확보하며 살아갈 뿐 아니라 타인의 공간까지 공유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공유공간에 대한 공동의식이 바로 '균형감각'과 밀접하게 연관된다고 한다(같은 책: 93). 이렇게 "나의 자아가 자신만의 고유한 영역을 유지하는 동시에 외부세계의 다른 존재와 관계를 맺으며 끊임없이 자아를 확장할 수 있는 능력을 '영적(정신)자아'라 한다."(같은 책: 94) 이러한 고차적인 힘을 통하여 인간은 자신의 독특한 개성을 타인에게 인정받으며 살기도 하고, 위대한 작품이 시공을 초월하여 공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하는 것이다. 이처럼 '촉각'은 존재의 근원에 대한 갈망인 '종교적 차원의 의미'를 담고 있고, '생명감각'은 '영(정신)인간'과, '운동감각'은 '생명영(정신)'과, 그리고 '균형감각'은 '영적(정신)자아'와 관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감정(혼)감각과 인간존재의 '혼'적 차원의 관계

인간이 자신의 내부를 벗어나 외부세계와 본격적으로 관계하는 감정(혼)감각 4가지는 인간의 혼적차원(감각혼, 오성혼, 의식혼), 그리고 아스트랄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우선 후각과

관련된 혼적 차원은 '의식혼,'인데, 이는 '선악을 판단하는 능력'에 작용하는 고차적인 영역이다(같은 책: 129). 인간은 후각을 통해서 무의식적으로 외부자극에 대한 가치판단을 하는데, 이는 정신적으로 도덕을 판단하는 능력과 연결된다고 한다. 그것은 우리가 일상적인 언어에서 도덕적으로 타락한 장면에 대하여 '썩은 냄새가 난다', 또는 도덕적인 행위에 대하여 '향기가 난다'는 등의 후각적인 표현을 쓰는 것에 잘 드러나 있다고 한다.

또한 인간의 미각은 인간의 생명 및 건강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는 감각인데, 우리가 먹는 음식의 종류가 우리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일 것이다. '당신이 먹는 음식이 미래의 당신을 결정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자신의 생체컨디션에 적절한 건강한 먹거리를 취사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안다. 특히 유아기에 단당류나 화학첨가제의 해악에 대한 경고와 주의는 이미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건강한 삶을 위해 먹거리를 현명하게 판단해야 하는 것처럼 인간의 혼 영역에서도 이와 같은 작용을 하는 정신적 감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성혼'이라고 한다. 오성혼은 인간의 '건강한 이성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영혼의 힘'인데 "우리가 직면하는 상황의 합리성 여부나 그 상황이 건강한 의식에 어긋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능력이다."(같은 책: 138-139) 시각과 관련된 혼적영역은 '감각혼'이다(같은 책: 210). 감각혼은 '외부 인상에 의해서 인간 혼에 생겨나는 감정과 느낌'에 해당되는 영역지만 이것을 '사고의 힘'으로 자신에게 쾌한 방향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인간이 이룩한 많은 물질문명이 그것인데, 이러한 사고에 가장 밀접한 감각이 '시각'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 사고의 많은 부분이 시각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것은 인간의 의식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같은 책: 210-211).

열 감각에 해당되는 혼적영역은 바로 '아스트랄'이다. 식물과 달리 인간은 따뜻한 피를 가진 동물적 존재인데, 인간이 지니는 충동, 동기, 욕망 등은 피가 지니는 온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지상에 살아가는 인간은 태양의 온기가 중요한 생존조건이 되고 자신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삶의 양식들을 만들어 낸다. 그런데 이렇게 직접적인 생존과 관련된 행위 외에도 인간은 타인과의 삶에서 서로의 온기를 주고받으며 살아간다(같은 책: 184). 그것은 타인과 관심을 주고받으며 인정받고자 하는 사회적인 영역의 이야기인데, 주변에 대한 관심과 사랑, 즉 인지능력과 관련된 것이다. 인간은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존재가 아니라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타인의 생각과 평가를 염두에 두는 사회적인 존재인 것이다(같은 책: 196).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후각은 '의식혼'과 미각은 '오성혼'과, 관련이 있고, 시각은 '감각혼' 그리고 열 감각은 '아스트랄'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사고(영)감각과 고차 영적존재와의 관계

자기자신을 분리시켜 외부대상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는 영의 영역에 해당하는 감각인 사고(영)감각 4가지는 인간의 고차영역 중 어디에 해당하는 것일까. 앞서 본 의지(몸)감각과 감정(혼)감각은 각각 인간의 영과 혼에 대비되는 것을 보았고 이제는 더 이상 인간 존재 자체에는 대비될 영역이 남아있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인간 존재의 영의 영역을 관장하고 보호하는 영역이란 더 이상 인간적인 것이 아닌 신적인 영역에서 그 비밀을 찾아야 하는 것이 맞는지도 모른다.

'청각'에 해당하는 고차적 영적 존재는 '(수호)천사들'이라고 한다. 인간에게는 자신을 분리시켜 타인에게 채널을 맞추는 일이 거의 불가능한 이기적인 존재이고, 지구상의 역사로 보았을 때 순수하게 이타적인 공동체란 찾기 힘들만큼 연약한 인간의 본성 때문에, 이를 도와주는 천사의 도움 없이는 깊은 의미에서의 청각은 가능하지 않은 것이다(같은 책: 242). '언어감각'에 해당하는 고차적 영적 존재는 '대천사'이다. 대천사는 인간 개개인과 친밀한 수호천사와 달리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하나의 인간집단과 소통하며, 집단의 구성원들이 상호 동질감을 느끼고 또 교육받는 수단이 되는 언어형성에 관계한다."(같은 책: 260) '사고감각'에 해당하는 고차적 영적 존재는 '그리스도'이다. 사고감각은 음성과 개별 언어를 넘어 깊은 침묵과 사유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로고스'로서의 그리스도, '모든 인간의 내면에 개념으로 그리고 상상만으로 존재하는 힘'인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가능해 진다는 것이다(같은 책: 268).

이러한 고차적인 영적 존재의 힘을 입어 인간의 감각은 섬세해 지고 고양되어 모든 감각적 통합을 통해 건전한 '자아감각'을 발달시키게 된다. 타인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바라 볼 수 있고 그 자아를 편견 없이 받아들이게 되며, 더불어 나의 자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 드높은 개념에서 내려와 더불어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에서 그 정신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신적 공동체를 실현하는 일이며 이는 '자아감각'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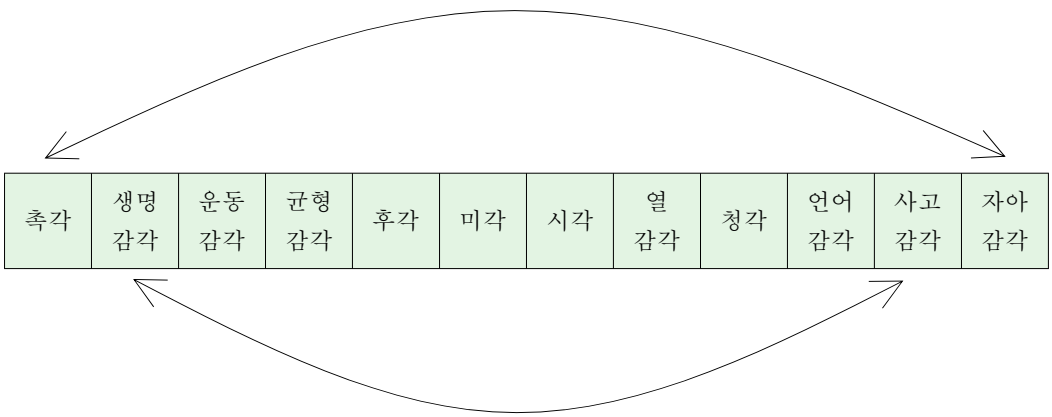
지금까지 슈타이너의 12감각에 대응하는 인간존재의 고차영역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슈타이너의 12감각											
의지(몸)감각 내부영역				감정(혼)감각 관계영역				사고(영)감각 외부영역			
촉각	생명 감각	운동 감각	균형 감각	후각	미각	시각	열 감각	청각	언어 감각	사고 감각	자아 감각
종교적 근원	영 인간	생명영	영적자아	의식혼	오성혼	감각혼	아스트랄	천사	대 천사	그리스도	감각통합
영적 영역				혼적 영역				고차영적존재			
대응하는 고차영역											

<표 2> 12감각에 대응하는 인간 존재의 고차영역

5. 슈타이너의 12감각의 상호대비관계

슈타이너의 12감각의 또 다른 신비는 상호간에 대비 관계를 가진다는 것이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가장 하위의 감각인 '촉각'은 가장 상위의 감각인 '자아감각'과 대비를 이루고 그 다음 '생명감각'은 '사고감각'과 대비를 이루는 순으로 의지(몸)감각은 사고(영)감각과 각각 대비를 이루고 감정(혼)감각 넷은 둘 씩 상호대비를 이룬다.



<표 3> 12감각의 상호대비관계 1

이 대비 관계를 도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table>
<tr><td colspan="4">사고(영)감각</td><td colspan="2">감정(혼)감각</td></tr>
<tr><td>촉각</td><td>생명감각</td><td>운동감각</td><td>균형 감각</td><td>후각</td><td>미각</td></tr>
<tr><td>자아 감각</td><td>사고 감각</td><td>언어감각</td><td>청각</td><td>열 감각</td><td>시각</td></tr>
<tr><td colspan="4">의지(몸)감각</td><td colspan="2">감정(혼)감각</td></tr>
</table>

<표 4> 12감각의 상호대비관계 2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촉각'은 '자아감각'과 상호대비관계를 이룬다. 촉각은 나와 세계와의 경계를 설정하는 감각으로 대상, 타인, 그리고 세계에 대비된 나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설립된 이후에야 타인의 자아를 잘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같은 책: 277-278).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타인의 자아에 쉽게 매몰되게 되고, 진심으로 그의 존재에 다가서기 힘들게 되는 것이다. 즉 자신의 타인의 명확한 경계가 설정되고 난 후 타인을 향해 나의 자아를 희생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또한 '생명감각'은 '사고감각'과 대비를 이룬다. 생명 감각이 인간 개체의 몸 적인 컨디션에 의한 것이고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면, 영의 영역에 속하는 사고감각은 인간 개체의 조건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 진리를 보존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내가 몸이 좋지 않다고 해서 '개념세계의 참과 거짓'이 변하지는 않는 것이다(같은 책: 264) 생명 감각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은 인간의 고통을 통해서인데, 아이들이 한차례 열 감기를 겪고 난 후 쑥 성장하는 것과 같이, 극심한 지적인 고통 후에 배움의 기쁨이 찾아오고 정신적인 성숙을 이루는 것은 같은 원리라고 할 수 있다.

'운동감각'은 '언어감각'과 상호대비를 이룬다. 운동동작은 크게 '상황순응동작'과 '표현 동작'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 '표현동작'은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다양한 제스처, 즉 바디랭귀지를 의미한다. 언어 역시 우리의 감정과 사고를 표현하기 위한 도구이며 이는 자음에서 그 특징이 잘 드러난다고 한다(같은 책: 259).

'균형감각'과 '청각'은 상호대비를 이루는데, 이들은 모두 귀라는 기관에서 이루어진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균형 감각은 지상에 도달한 인간이 직립을 통하여 인간 고유의 자아를 확립하

는 것이라면 청각은 자신의 개별 존재를 넘어서 외부의 영역으로 나아가는 것, 즉 타인과 세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우주를 향한 정신세계로 도약'하는 것이다(같은 책: 233).

지금까지 인간의 12감각 중 의지(몸)감각과 사고(영)감각의 상호대비관계를 보았는데, 인간의 감정(혼)감각 4가지는 각각 2가지씩 서로 대비를 이룬다. 우선 '후각'과 '열 감각'을 살펴보면, 후각은 외부의 세계가 급진적으로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며, 몸의 중심부에서 작용하는 감각이라면 열 감각은 몸의 전면에 분포되어 세계에 대한 관심을 발산하는 감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시각'은 '미각'과 대비되는 감각으로, 시각이 외부에 대해 열려있는 감각이라면 미각은 외부를 내부로 받아들여 폐쇄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감각이라고 할 수 있다.

Ⅲ. 슈타이너의 12감각론과 교육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슈타이너의 12감각은 인간의 의지, 감정, 사고 그리고 몸, 혼, 영의 깊은 관련 속에서 이해되었고, 각 감각들은 고차영역들과의 밀접한 관련 속에 놓여 있으며, 또한 감각 간의 상호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슈타이너의 12감각은 우리에게 교육적 의미 뿐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적 측면에서 많은 통찰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발도르프 교육에서는 이 이론을 근거로 구체적인 교육방법을 실천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슈타이너 12감각론의 교육적 의의

가. 총체적이고 전인적 인간이해를 기반으로 감각의 고차원적 지평을 열어준 12감각

슈타이너의 12감각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감각(시각, 미각, 후각, 청각, 촉각 등)의 범위를 12가지로 확장시켜 감각의 지평을 넓혔다고 할 수 있다. 그에게 감각이란 단순히 외부정보를 받아들이는 일차적 기관으로서의 감각기관에 그치지 않고 보다 깊은 혼적, 영적차원을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이 됨을 알 수 있다. 하나의 개별체로서 인간존재가 자신의 몸적 기반을 마련하고 외부와의 관계를 통해서 대상 그 자체로 나아가는 과정이 12감각론을 통하여 드라마틱하게 그려지고 있다. 특히 슈타이너의 감각론은 인간의 몸(의지), 감정(혼), 사고(영)의 밀접한 관련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감각의 총체성, 전인성을 획득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각 감각이 인간의 고차적 영역과의 밀접한 관련을 통해 인간에게 작용한다는 것과 감각들 간의 상호 관련성을 통하여 볼 때 슈타이너의 12감각은 감각의 고차원적 지평을 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슈타이너 감각론의 고차원적 지평은 그 초월적 특징에서 잘 드러난다. 즉 그는 감각을 통

하여 고차적인 영적영적, 지적인 영역에 이르는 길이 있다고 말한 것이다. 앞서 의지, 감정, 사고의 특성을 고찰한 부분에서 슈타이너는 사고가 시작되는 인간의 표상은 과거, 즉 탄생 이전의 죽음과 관계되어 있는 것인데 반해, 의지는 미래의 영적인 실재가 될 싹으로 현재에 존재한다고 말하였다. 따라서 우리가 사고활동을 할 때 표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의지적인 것'으로 접근하면 '12감각을 포함한 생생한 그 무엇'과 관계한다는 말을 상기하여 볼 때(슈타이너, 2007: 73), 우리 몸의 기초적인 감각 속에 세계의 실재를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놓여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기초적인 감각은 인간의 고차적인 영적 차원과 고차적 영적 존재와의 상호순환적인 관련이 놓여있었고, 이는 우리의 감각 그 자체가 '초월의 내재'의 실현이며, 하나의 작은 우주라는 비밀을 드러내는 열쇠가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슈타이너의 감각론이 지니는 종교적 의미와도 연결된다. 슈타이너는 칸트에게서 견고하게 경계가 그어진 물자체의 영역을 인간의 감각훈련으로 또한 고차적 정신훈련으로(그러나 이 둘이 다른 것이 아님을 감각론의 이해를 통하여 알게 된다), 도달할 수 있음을 말하였다. 본 연구자는 슈타이너를 연구하며 이 물자체의 영역, 이데아의 영역이 슈타이너의 '상상력'을 통하여 도달할 수 있음을 밝혔고 그 상상력이 지니는 종교적 특성을 언급한 바 있다(최숙연, 2010). 본 연구자는 슈타이너의 12감각론을 고찰하면서 이것을 다시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는 슈타이너가 인간의 사고(영)감각과 고차적 영적 실재와의 관련을 언급한 부분에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슈타이너는 인간의 사고(영)감각은 천사, 대천사, 그리스도의 도움을 통하여 그 진실된 감각이 모습을 드러낸다고 말하였는데, 특히 사고감각(thought sense)이 가능한 것은 온전히 희생정신을 실행한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볼 때 그의 사상의 종교적 통찰이 더욱 명확히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간이 타인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고 사고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의 노력에서 가능하다기 보다는 자신의 이성적 한계를 인식하고 겸허함으로 도움을 요청할 때 가능한 것이고, 자신을 비우고 낮춤으로 더 큰 근원을 내 안에 담지하는 기도와 같은 작업이 지적활동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 즉 모든 관심이 지식교육에 초점을 맞추어져, 수많은 물량과 에너지를 투입하고 있는 우리의 교육현장에 더욱 종교적 영역이 초청되어 그와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나. 아이들의 감각이 '보호'되어야 하는 당위와 근거를 제공

우리는 현대의 과도한 미디어의 자극과 해로운 유해물질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그 영향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그들의 영혼과 정신에 해악을 끼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단지 문제적 현상에 대한 결과들, 이를테면 아이들의 신체적 건강과 그 정서적 불균형 등의 차원에서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 총체적이고 전인

적인 차원의 깊이, 즉 아이들의 (영)혼과 영(정신), 의지, 감정, 사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말해주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듯하다. 또한 이러한 과도한 자극들은 우리의 아이들의 감각을 일깨운다는 명목으로 무분별하게 아이들에게 투입되기도 한다. 특히 감각을 일깨우는 목적이 '지능계발'과 연결되면서 상업성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슈타이너의 12감각론을 고찰해 보면 현대에 있어서 인간의 감각이란 계발되어야 할 것이 아닌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연적이지 않고 인위적인 장난감들, 색감이 지나치게 화려하고 요란스러운 많은 교구들, 화학조미료, 인스턴트 음식들, 아이들의 흥미를 지나치게 자극하는 TV프로그램들, 인위적이고 계획적인 각종 프로그램들, 과도한 영어교육의 열풍, 학습지 등등에서 아이들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이들은 아이들의 고유한 12감각이 잘 자라나는데 저해하는 요소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의 거대한 문명 속에서 그리고 첨단의 멀티미디어 시대에서 마치 시대와 동떨어진 고립자처럼 그 자극들을 외면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다. 그러나 적어도 유아기시기, 12감각 중 의지감각이 우선적으로 싹트는 유아기만큼은 아이들의 감각은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본적인 의지감각들은 인간의 상위감각 즉 사고감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음을 보았고, 그 기초적인 감각들이 잘 마련이 되면 그것을 기반으로 이후의 감각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기 때문이다. 첨단 멀티미디어와의 동행을 큰 과제로 삼고 있는 최근 유아교육적 경향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것은 뒤쳐진 생각이 될 수 있겠지만, 바깥세상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뱃속의 아이는 온전히 보호되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의 기초적인 감각은 '보호'되어야 하며, 이것을 기반으로 더 높은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믿음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이 믿음은 슈타이너의 12감각론의 깊은 이해를 통하여 견고해 질 수 있다고 본다.

2. 12감각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적 배려들(유아교육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슈타이너의 12감각론이 지니는 교육적 의미를 살펴보면서 아이들, 특히 유아기의 감각이 보호되어야 하는 당위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우리가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은 발도르프 유아교육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의지감각 중에서 '촉각'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적 배려들을 살펴보면 이는 유아기의 기본적인 생활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수스만(2007)은 어린 시절 모유를 먹고 자라는 아이와 젖병을 만지며 자란 아이의 촉각에는 명백한 차이가 있음을 밝힌다. 유아기에 모든 세계에 대한 정보는 촉각을 통하여 시작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닌데, 촉각을 통하여 만지는 대상의 정보를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을 이루고 있는 경계'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된다. "건강한 촉

각을 발달시키게 되면 자신 뿐 아니라 주변 대상의 경계를 이해하는 능력들을 더 발달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패터슨 & 브래들리, 2007: 113) 이러한 이유로 발도르프 유아교육에서는 양모, 면, 나무, 실크와 같은 그 자체의 고유한 특성을 잘 담지하고 있는 천연의 소재의 장난감을 제공하려고 애쓰며, 특히 유아가 입는 옷의 소재 역시 천연소재로 된 것을 선호한다.

'생명감각'을 길러주기 위한 교육적 배려들은 우선 '고통'에서 그 통찰을 얻을 수 있다. 우리가 아이들의 고통을 제거해 주려 하는 많은 행위들(예를 들면 춥고 바람 부는 날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거나 차로 등교시켜주는 일 등)은 실제 아이들의 생명 감각을 둔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한다(수스만, 2007: 43). 아이들은 육체적인 피로와 고통을 통해서 생명 감각을 일깨우게 되는데 이는 정신적인 고통과도 연결된다. 이는 동화를 통해서 잘 드러나는데, 동화에서 보여주는 잔혹한 이야기들, 고통스러운 장면들은 제거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들려주는 것이 좋다고 한다. 이러한 장면을 제거하는 일은 일종의 '진통 효과'를 일으켜 생명에 대한 감각을 빼앗고 둔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패터슨 & 브래들리, 2007: 113).

'운동감각'은 "우리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수의근"을 조절하고 그것을 느끼는 감각을 의미하는데(수스만, 2007: 57), 이 감각이 발달함에 따라 유아들은 서고 걷는 것을 배우게 된다. 스스로 앉을 수 있거나 기던 아이는 서고 걸을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활동은 가능하면 유아의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너무 일찍 직립자세를 강요하거나 보행기에 태우는 일 등은 미숙한 관절에 무리를 주는 일이며 운동감각의 발달을 방해하는 일로 여긴다(패터슨 & 브래들리, 2007: 117).

'균형감각'은 특히 유아가 직립자세를 취하게 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느끼게 되는 감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지구의 중력계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감각인데, 유아가 지상에 내려와 획득해야 하는 큰 과업 중 하나는 이 지구의 중력 속에서 균형을 잡고 똑바로 서는 직립일 것이다. 유아가 서기 시작하거나 중심을 잡고 걷기 시작할 때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일, 발도르프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평균대 걷기, 줄넘기, 제자리 뛰기, 건너뛰기, 발끝으로 걷기 등은 균형감각의 발달을 도와주는 활동이다(같은 책: 119-120).

감정(혼)감각에 해당하는 '후각'은 비교적 후천적으로 학습 되는 감각으로 쾌, 불쾌 냄새의 구별을 선천적인 아닌 학습된 것이라는 점이 동물과는 구별되는 점이다(수스만, 2007: 112-113). 따라서 후각은 상당히 기억과 밀접하며 그 기억에 수반된 정서적인 측면과도 밀접한 것이다(패터슨 & 브래들리, 2007: 121). 특정 냄새에 연관되어 아름다운 기억을 할 수도 있고, 불쾌한 기억을 떠올릴 수도 있는 것이다. 특히 유아기에 불쾌한 냄새에 자주 노출되면 "유아는 자신의 감각을 닫아버릴지도 모르며(...) 그 결과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신뢰하고 마음을 여는 능력을 발달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패터슨 & 브래들리, 2007: 122-123)고 한다. 따라서 아이들의 주변에

는 늘 인위적이지 않은 은은한 자연의 향기가 존재하는 것이 좋다. 말린 꽃 향기, 낙엽향기 등의 자연적인 향과 가정에서 식사시간마다 풍기는 풍요로운 음식냄새는 아이들의 소화를 촉진시킨다.

'미각'의 각 영역(단맛, 쓴맛, 짠맛)들은 각기 인간의 몸에 다른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짠 음식은 '지나치게 꿈꾸는 듯 한 아이를 일깨우는' 효과가 있으며, 단맛은 '슬픈 아이에게 행복한 기분'을, 쓴맛은 '동기가 부족한 아이의 의지를 일깨우는데' 효과적이라고 한다(같은 책: 123). 특히 유아기에는 미각의 조화로운 발달과 건강을 위해서 화학조미료나 인공감미료 소금, 설탕 등의 과도한 사용은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평화롭고 신성하며 미적인 식탁분위기를 형성하는 일(수스만, 2007: 151)도 아이들의 미각을 보호하는 일과 연결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시각'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적 배려는 발도르프 유아교육에서 잘 드러나 있다. 발도르프 유아교육에서 색채에 대한 고려는 중요한 교육적 요소인데, 그 중 독특한 것은 '보색관계'에 대한 통찰이다. 유아의 경우 외면의 색채도 중요하지만 '내적인 색채의 경험이 강하기 때문에' 특히 보색이 치료의 목적으로 많이 활용된다. 예를 들면 "위축된 아이에게 파란색을 입히면 파란색의 보색인 주황색의 활발함을 내적으로 느낄 수 있을 것이며, 지나치게 활발한 아이에게는 빨강색을 입히면 그 보색인 초록색의 차분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패터슨 & 브래들리, 2007: 125-126). 또한 발도르프 유치원에서의 벽지나 커텐의 색은 일반적으로 분홍색(슈타이너가 말한 복숭아 꽃 색, 혹은 밝은 장미색)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는 '꿈을 꾸는 듯 한 유아의 감정상태'를 잘 반영해 주는 것이라고 한다(강인구, 최경, 2006: 89). 이는 역시 '괴테의 색채학'에서 보여주는 '보색관계'가 고려된 것이라고 하는데, 이를테면 '분홍색의 커튼의 보색은 초록색'인데, 이것이 "유아의 내면에 이미지로 떠올라서 유아를 정적으로 인도하는 효과가 있기도 하다."는 것이다. 또한 과도한 시각적 자극에 노출되지 않는 일, 특히 TV나 인터넷의 과한 영상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일 것이다.

'열감각'은 일반적으로 촉각과 혼돈하여 생각하기 쉬운 감각이다. 슈타이너의 말에 의하면 온감각과 촉각을 하나로 묶어서 생각하는 것은 "연기와 먼지가 외적으로 유사하다고 하나로 묶어서 보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슈타이너, 2007a: 178). 앞서 살펴보았듯이 촉각은 의지적인데 반해 "열 감각은 감정적인 것이다."(같은 책: 185) 열 감각은 사물의 따스함을 느끼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혼의 반응을 느끼는 것'까지 확장된다. 특히 유아들이 이것을 민감하게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 주위의 '따스하고 친절한 반응'은 유아의 혼을 확장하게 도와주는데 반해 '차가운 반응'은 유아를 움츠려들게 하며 자기 안으로 숨어버리게 한다는 것이다(패터슨 & 브래들리, 2007: 127-128). 따라서 유아의 주위에 따스한 혼의 온기를 지닌 부모나 교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유아의 풍부한 감정을 위한 당연한 교육적 배려이다. 또한 유아의 몸을 따뜻하

게 유지하는 몸의 배려 또한 무척 중요하다. 항상 여분의 옷을 준비하여 아이들의 체온을 보호하고 아이들이 거하는 공간의 온기를 유지하는 일, 늘 따뜻한 음료와 음식을 먹이는 일(김종수, 2009)[6]이 감정적인 온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이 아이들의 감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잔혹한 홀로코스트의 주범인 히틀러나 그의 부하인 아이히만의 어린 시절이 혹독하게 추웠고 그의 어머니는 내복조차 입히지 않은 방임을 했다는 것을 떠올리면 어린 시절의 따스함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사고(영)감각에 해당되는 '청각'에 대한 교육적 배려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발도르프 교육에서는 유아의 '청각'을 지나치게 자극하는 전자음(라디오, 시디플레이어, 텔레비전)들에 아이들이 노출되는 것을 꺼린다. 가능하면 조용한 목소리와 자연스러운 소리들로 유아의 청각을 자극하려는 교육적 배려를 중요하게 생각한다(패터슨 & 브래들리, 2007: 130-131). '청각'은 자신을 초월하여 타인의 혼과 영을 체험하는 일인데, 녹음된 매체에서는 이러한 혼과 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음향의 세계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창조적이고 현존하는 본질에 대한 가치"이므로 유명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녹음된 것으로 듣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언어감각'은 인간 사이의 직접적인 소통과 만남을 통해서 길러질 수 있는 것이므로 발도르프 교육에서는 매체를 통한 언어교육에 회의적이다. 특히 TV를 보는 일은 "뇌에 있는 언어 영역의 발달을 지연시킴으로써 언어와 관계된 능력을 둔하게 만들 수 있다"(같은 책: 134)고 한다. 교사의 상상력 넘치는 이야기들과 운율이 맞는 시나 전래동요들은 유아의 언어감각을 일깨우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이러한 '시와 운율이 맞는 전래동요, 이야기'는 교사의 마음속에서 떠올리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유아에게 전달해 주며 이는 타인의 '사고감각'을 길러준다고 할 수 있다(같은 책: 137). 사고감각은 생각하는 고통 속에서 길러질 수 있는 것으로 아이들에게 정신적으로 고통을 줄 수 있는 질문을 던지는 것, 그리고 쉽게 답을 주지 않는 것, 또한 배고픈 것도 참을 줄 알며, 하고 싶은 마음도 억누를 줄 아는 일들, 인내심을 같고 끝까지 해내는 일을 경험하는 일들도 사고감각의 고양하는 일과 연결된다(수스만, 2007: 266). 이는 사고감각이 '생명감각'과 연결되는 슈타

6) 김종수(2009)는 자연의학자로 현대인의 많은 질병은 바로 '냉장고'의 출현에서 시작한다고 말한다. 음식을 차게 해서 먹는 습관이 모든 질병의 근원이 되었다고 보았는데, 그는 '모든 생명체는 따뜻하며 죽은 것은 차갑다'는 기본 전제에서 출발하며 인간의 몸을 살리기 위해서는 항상 따뜻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즉 몸에 생명온도를 살려야 한다는 것인데, 차가운 음식 뿐 아니라 인스턴트, 조미료, 정크푸드 등은 몸을 차갑게 만들어 병을 일으킨다고 경고한다. 이는 인간의 정서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인간의 고립감, 조바심, 주의집중 저하 등도 몸이 차가워진 결과라고 말한다. 따라서 몸을 따뜻하게 하는 생활습관, 즉 늘 따뜻한 물을 마시고 음식을 데워먹는 일 등은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활기를 찾으며 타인에게 열려진 마음을 갖는 일과 연결된다는 것이다. 이는 열감각과 인간의 정서를 연결하는 슈타이너의 통찰과도 잘 연결되는 부분이다.

이너 감각론의 깊은 차원의 통찰을 보여준다.

‘자아감각’을 위한 교육적 배려들은 다음과 같다. 유아들은 본능적으로 타인의 이면에 존재하는 진짜 존재를 알아차릴 수 있지만 아직 자아가 강하게 발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타인의 나쁜 자아도 전체로 흡수해 버린다고 한다(패터슨 & 브래들리, 2007: 138). 따라서 유아의 주변에 있는 교사나 부모의 인격적 소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또한 진정한 자아감각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건전한 촉각’의 발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자아감각과 촉각을 연결하는 슈타이너 감각론의 깊이 있는 이야기인데, “촉각의 발달을 위해서 자신의 육체적인 경계를 의식하고 이 경험을 다시 의식에서 지울 때, 비로소 우리는 타인의 자아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수스만, 2007: 280)

Ⅳ. 나가는 글

우리는 지금까지 슈타이너의 12감각론과 그 교육적 의미 그리고 실천방안들을 살펴보았다. 슈타이너의 12감각은 인간과 우주 그리고 초월적 영역과의 깊은 교류 속에서 그 신비한 비밀을 간직하고 있으며, 그 비밀은 우리 속에 내재하는 가운데 세심한 배려를 통하여 열려질 수 있음을 보았다. 슈타이너에게 12감각은 인간 자신의 내면세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세계와의 관계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우리가 도달할 수 없다고 여겨졌던 사물자체, 혹은 타인의 존재 그 자체로 도달 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세계를 자신의 이익과 이기심의 도구로 화하여 세계의 존재자체도 없애버리는 상황에 부딪히게 되었다. 수많은 환경파괴와 소통의 부재, 학교에 만연한 폭력들, 미디어와 가상세계 속에서 자신과 세계의 경계를 상실한 채 헤매는 많은 현상들은 세계의 존재를 그 자체로 인정하지 못하면서도 자신의 정체성도 모호한 현대인의 무감각성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슈타이너의 ‘자아감각’은 특별히 심도 깊게 고찰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자아감각’은 슈타이너의 감각들이 잘 통합되어 이루어 낸 하모니의 결정체로, 나 자신을 넘어서 진정으로 타자에게 도달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나 자신의 정체성과 고유성이 내적으로 충분히 완성된 후 가능한 것인데, 그것이 건강하게 마련될 때 이기심으로 화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자신을 넘어서 타자에게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후속연구로 심화시켜 볼 일이다.

슈타이너는 대상 그 자체, 즉 영의 영역을 설명하면서 ‘별들의 운행법칙’을 예로 들어 설명한 바 있는데(슈타이너, 2001a), ‘별’이란 우리의 이기심과 조작욕망이 도달하기 못하는 저 너머의 세계, 즉 물자체를 상징한다면, 오늘날 우리는 그 ‘별들의 노랫소리’를 얼마만큼 들을 수 있는 것일까? 구전되어온 시를 모아 엮은 류시화(2005)의 책에 실린 한 편의 시[7]에 등장하는 부시맨,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표정으로 안쓰럽게 우리를 바라보는 부시맨의 눈빛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첨단 미디어 시대, 자유롭게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도 내 앞에 놓인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 답답해하는 우리들, 너의 고통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능력조차 없어 무감각하게 이루어지는 학교폭력과 왕따, 그래서 스스로의 고통을 안고 자살해야 하는 우리의 아이들,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과연 무엇을 되찾아야 하는 것일까?

많은 것이 넘치는 시대, 그리고 더 가지기 위해 조바심을 내며 애를 쓰지만 정작 이루지 못하는 박탈감과 유감에 시달리는 시대, 역사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더 해주어야 한다는 강박증에 시달리는 교육과잉의 시대에 우리가 진정으로 유감스러워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슈타이너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하여, 우리가 '별들의 노랫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길과 우리 마음속의 두려움과 조바심을 걷어낼 수 있는 하나의 길에 대하여 말해준다. 그것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섬세하게 이루어지는 감각의 보호와 배려, 그 작고 구체적인 실천에서 시작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 가르침을 '들을 수'있어야 한다.

---

7) 별들의 침묵(데이비드 웨이고너)

한 백인 인류학자가 / 어느 날 밤 칼라하리 사막에서
부시맨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 자신은 별들의 노랫소리를 들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부시맨들은 /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어 했다.
그들은 미소를 지으며 /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가 농담을 하거나 /자신들을 속이고 있다고 여기면서.

농사를 지은 적도 없고 /사냥할 도구도 변변치 않으며
평생 거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살아온 /두 명의 키 작은 부시맨이
그 인류학자를 /모닥불에서 멀리 떨어진 언덕으로 데려가 / 밤하늘 아래 서서 귀를 기울였다.

그런 다음 한사람이 속삭이며 물었다. /이제는 별들의 노랫소리가 들리느냐고.
그는 의심스런 사람이 되고 싶진 않았지만 /아무리 해도 들리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부시맨들은 그를 마치 아픈 사람처럼 /천천히 모닥불로 데려간 뒤
고개를 저으며 그에게 말했다. /참으로 안된 일이라고, 참으로 유감이라고.

인류학자는 오히려 자신이 더 유감이었다. /언제부턴가
자신과 자신의 조상들이 /듣는 능력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

참 고 문 헌

김종수(2007).『따뜻하면 살고 차가워지면 죽는다』제주: 정신 세계원.

류시화(편)(2005).『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서울: 오래된 미래.

수스만, 알베르트(2007).『영혼을 깨우는 12감각』서영숙 역. 서울: 섬돌.

슈타이너, 루돌프(2001a).『신지학』양억관, 타카시 이와오 역. 서울: 물병자리.

슈타이너, 루돌프(2001b).『정신과학에서 바라본 아동교육』양억관, 이정희 역. 경기: 파라다이스.

슈타이너, 루돌프(2007).『인간에 대한 보편적인 앎』최혜경 역. 서울: 밝은 누리.

이은선(1998). "루돌프 슈타이너의 신지학과 교육".『교육철학』19. 199-218.

패터슨, 바바라 J. & 브래들리, 파멜라(2007). 『무지개다리 너머: 평생을 좌우하는 0-7세 발도르프 유아교육』강도은 역. 서울: 물병자리.

최숙연(2010). "루돌프 슈타이너 상상력과 그 유아교육적 의미탐구". 박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Steiner, R.(1994). Theosophy. trans., Cathrtine E. Creeger. Anthroposophic Press.

Steiner, R.(2004). Study of man, trans. Daphne Harwood and Helen Fox., London: Rudolf Steiner Press.

□ 논문접수 : 2011년 11월 13일/ 수정본 접수 11월 28일/ 게재 승인 11월 30일

□ 최숙연 : 고신대학교 강사, 연구 관심분야는 발도르프 교육, 슈타이너 교육사상, 영성교육, 교사교육, 유아교육 등이다. csy8616@empal.com

ABSTRACT

Rudolf Steiner's Twelve Senses and Education

Choi, Sookyeon(Koshin Univ.)

This study intends to understand Steiner's twelve senses in depth to seek their meaning in education and concrete ways to apply them. Steiner described human senses by expanding them into 12 categories, and they are the willing (body) senses including the sense of touch, sense of life, sense of movement, and sense of balance, the feeling (soul) senses including the sense of smell, sense of taste, sense of sight, and sense of warmth, and the thinking (spirit) senses including the sense of hearing, sense of speech, thought sense, and ego-sense. These senses are understood through the close relationship with the three elements of human existence, willing, feeling, and thinking as well as body, soul, and spirit, and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orrelation between them. The characteristics of these senses were examined by defining willing (body) senses or the senses that belong to the inner side of an individual as the 'inner domain', feeling (soul) senses as the 'relational domain' where an individual has an established inner side and interacts with the world (subject), and thinking (spirit) senses as the 'outer domain' where the senses completely transcend the inner side and reach the world (subject) itself. These senses not only exist within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the spiritual domain in high dimension and the spiritual existence in high degree but also maintains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themselves, and such relationships were examined and schematized. These twelve senses of Steiner are considered to have broaden the understanding of human senses by comprehending and analyzing them in the overall and holistic view of the human being and also provided the reason and basis for the protection of our senses. Also, the twelve senses of Steiner provides great insight for educational practice, and in particular, the cases found through the practice of Waldorf education and practical aspects that can be applied in everyday scenes

Key words : Rudolf Steiner, twelve senses, Waldorf Education